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 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한마음에 일체 있으니 용도대로 쓰세요”

15면에서 계속

사업이 구조조정 위기에...

라 그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하는 반면에 큰 것도 잘못하게 된다는 얘기도. 그렇게 된다면 보살 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본다면 참 이런 공부는 세세생생이 가도록 돈을 내고 공부해도 아깝지 않은 공부입니다. 정말 이 공부라는 것은 이런 인연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전지에 인연이 돼서 이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자리에 모인 거죠. 또 우리가 앉았는 게 아니라 일체 제불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이렇게 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덕인 줄 아십니까.

이 공부 하는데 이유를 붙이거나 여자 다 남자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것도 보지 마시고 그저 다행히 상황이 좋게 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준 것이고 가난이 되고 사는 걸 그대로 사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다 걸어야 보살행이라는 거죠.

도살가축 천도시키려면

문 저는 제주지원 심용회에서 공부 하고 있는 김기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스님 앞에서 말씀 드리게 될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스님께 서 저희들이 한마음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스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생각 합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 올리고 자 합니다. 경소에 저희들이 생활하다보면 어떤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도살을 하거나 살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같이 있게 될 때 저의 항상 도살하는 이에게 인망하거나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불법에 인연하여 진화 발전하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보면 제 자신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면서 과연 그런 관을 하고 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문 그것을 길게 그렇게 꼼꼼히 생각 해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그런 생각으로서 하신다면 정말이지, 진화가 돼서 한자리를 같이 하는 거죠.

옛날에 승려들이 참, 같이 한도량에서 사는데 은사스님이 죽게 됐어요. 선방이니까 수좌라고 그러죠. 제일 아래서 공양주를 살던 어느 수좌가 가만히 보니까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영 먹는 게 실감되지 않거든요. 부실하게 나물만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게 기운을 못 차려서 저렇게 병이 드셨나보다 하고서는 나가서 지렁이를 그냥 한 소두리씩 잡아서 소금을 넣고 씻어서 그대로 산에서 달여가지고 그 물을 꼭 짜가지고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는 인제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나를 살생을 해도 안된다네 너는 아예 수만 마리씩 그렇게 살생을 하니 너는 인제 죽었다.’ 또 ‘우리들까지도 같이 문제가 되니까 너 그러하지 말아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막내 스님은 ‘나는 내가 죄를 저서 가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스님만 살리면 돼’ 하고는 꽃이 견뎌냈답니다. 지렁이도 스님으로 하나가 돼서 진화되니 좋고, 스님 병도 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닭을 한마리 잡았다 한다면 곁으로 따지고 보면 살생이죠. 그러나 그 닭의 입장에서 큰 영광이죠. 더구나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걸렸다는 게 정말이지 천년에 한번 걸릴까 말까 한 문제죠. 천년만에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랬듯이 그런 사람에게 먹히면 그냥 제각 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모습을 벗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양면이 다 좋죠.

문 저는 제주지원에 다니고 있는 심용회 강재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큰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3년 전 집사람이 몸이 아플 때 이 불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지만 병명은 없고 무당을 데려다가 큰 곳을 두 번씩이나 했지만 몸은 아파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마음선원에 다니는 동생이 큰스님 친견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처음으로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스님께서 “알았어요. 나무가 뿌리를 믿고 살 듯이 자신의 뿌리를 믿도록 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불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던 저와 집사람은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선원에 열심히 다녔고 그러다보니 스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통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세 사업체는 합병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업체와 합병을 해야될지 다른 사업체로 바뀌어야 할지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에 맡기고 놓으려고 하지만 번뇌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돌려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큰스님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문 우리가 양면에 다 전화를 연결 해놓았기 때문에 전화목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주인공과 자기와 연관이 돼 있다구요. 여러분이 다요. 누구나 다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국 어디 세계적으로 다 전화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통신처거든요. 통신처만 되는 게 아니지만 말이 나왔으니 그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던 모든 주인공에게 통신을 해서 다 당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이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망이 다 이렇게 음파가 통한다는 말입니다. 음파가 통하면 음파가 통하는 대로 부처님



그림 · 최주현

않는 것도 있지만 이 선행가는 통합니다. 이 선행가를 노래라고 하지만 그것을 자주 부르면 그것도 아주 영연하는 그런 관이 되고, 지극한. 그러기 때문에 물론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만 생각을 그렇게 크게 넓혀라 이거죠. 넓히면 넓히는 대로 나한테 이득이 오고 상대방에 이득이 간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 선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합이 될 수 있고요. 이 선행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판 데서 그렇게 선행가를 잘 지어서 그렇게 법문으로 듣게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이 선행가를 부를 때 보면 너무나 기쁘고 그냥 그 운

평상시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빨리 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스님들이 사는 데서는요, 짜면 그냥 물타서 먹고요. 싱거운데 간장 타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살아 나가는 것도 다 그렇게 해라. 내 탓으로 돌려라. 모두가 내 탓으로 돌려라.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일체 제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 어디에 가서 부처님을 이 부처 지 부처 찾게 내 나라 모든 일체 제불의 마음들이 전부 내 한마음에 있으니 내 한마음 속에서 다 용도대로 써라. 이런 겁니다. 일체 만물이 내 한마음 속에 들어있으니 용도대로 써내라. 이렇게 간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자유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법방에서 절립이 없다 이 소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요. 너무 어렵게 짜들리며 살다 어느날은 꿈을 꾸었는데 조상들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그러시기를 조상과 내가 같이 하고 괴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영령들이 나왔다가 썩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져서 어디로 가나 보니까 연기처럼 해서 자기한테로 다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이게 연기처럼 해가지고 저한테로 다 들어왔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하구요. 그래서 ‘혀, 네 영애가 영이 연기처럼 해서 들어왔으면 그게 영이 몇 개나 되겠느냐?’

삼세가 공했으니

나도 공했으며

의식도 다 공했고

죄·업보·인과·유전성

아무것도 없어요

하니가 ‘영은 영이죠. 그냥’ ‘그러면 뭘지 않느냐? 그랬으면 벌써 너의 몸으로 인해서 재생이 돼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입산하러 오면 부처님께서는 그것부터 물어보셨더라고요. “너는 왜 한 짐 짊어지고 왔느냐?” 하면 “전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이러거든요. “너의 식구를 다 짊어지고 오지 않았느냐. 다 벗어놓고 오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을 했다 하고 몇 달만에 오니까 이번에는 “아니, 식구는 때려놓았으나 재산 문서는 왜 짊어지고 왔느냐?” 하니가 그냥 얼마나 그 마음이 진정공 공부하려고 들었던 바대로 들어있으니 용도대로 다 집어넣으려고요. 그러니 집에서는 식구 다 죽이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현실이거든요. 과거 미래가 현실이란 말입니다. 내일이다 어저께다 하는 교차로가 있을 뿐이냐 그 교차로라는 것만 알면 그냥 하나죠. 하나 데 그 하나도 모두가 공했으니까 너까지도 놓아라. 너마저도, 너가 있던 말도 하지 마라. 너도 공했다. 삼세가 공했으면 너도 공했고 너가 공했으면 네 몸통이 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공했다. 다 공했으면 그냥 힘이 없이 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죄도 없고 업보도 없고 인과도 없고 유전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너가 없는데 뭐가 있겠느냐.

이 도리를 여러분께서 참, 진정코 알아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그 유전성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악화된 영, 병세 이런 것도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해서 병이 없거나 죽지 않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고통을 덜 받고 살고 또 진짜로만 믿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즐겁게 웃으며 살게 되고 생활도 지치지 않게 살 수 있던 말입니다. 그리고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그 모두가 다 자꾸자꾸 무너지니까 구름이 다 걷히니까 햇빛이 짙아져서 내 뜻은 모습을 다 드러내준다. 이런 뜻과 같죠.

그래서 이런 공부는 배운 글자로서 학식이란 해서는 이 공부를 못하죠. 이거는 학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수화공을 배워 삼아서 나온 거니까요. 우리는 지수화공 중 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살아야. 피만 조금 안 돌아도 야단법석이죠. 물 한 컵만 먹어도 야단법석이죠. 또 불만 없어도 야단법석. 공기가 없어도 야단법석. 또 그럭저럭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죽죠. 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공 그 자체가 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더 사실 수가 있었는데 주위에서 아난이 채 못 들어서, 얼른 쉽게 말해서 더 사시다가 가시라고 그런 말을 못 했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자기가 죽고 싶고 무슨 살고 싶고 이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원하는 원하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거보다 더 크게 꼭 가만히 된다는 거야 되겠지. 이거는 양면의 살림살이뿐 아니라 전체를 두루하는 살림살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자체에 두루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뛰는 건요. 하나도 괴로움이 없고 하나도 걱정이 없고 하나도 하는 게 없고, 하는 게 없으면서도 진실로써 그냥 되는 거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참,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고 이 도리를 아신다면 진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짐승이 돼서 짐승의 대접을 받고 사는 걸 보세요. 그걸 아신다면 참 그런 짐승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려 할 거예요. 사람이 됐다가 짐승이 되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리고 또 짐승이 사람으로 된 사람도 많고요. 사람이 되는 것도 그게 축성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도리를 좀 알고 가야 그나마 좀 낫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세 번을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부처님과 한자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여러분은 다 그런 분들끼리 만나서 마음공부들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 다음에는 ‘죽어도 살기도 이거는 뭐 떠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도 없구나. 은혜가 그렇게 많고 우주가 그렇게 많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이런 게 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찰나찰나 회개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그렇게 자유스럽게 사는 거구나!’ 하고 그럴 때는 내 생각이 많이 나시겠지. 허허허. 여러분께서 모두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해요.

*위 법문은 1999년 10월 3일 법행체회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짜면 물타고 싱거우면 간장 타듯 살아가는 것도 다 그렇게 하세요

들이나 보살들이나 모두 이렇게 보이지는 데서 다 응해주십시오.

문 동업을 한다거나 이런다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거기가 관해되면 이게 좋지 않다 좋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 그 거를 그렇게만 나누는 게 아니라 때때로 나쁜 점을 행해서 내가 장사를 못하겠나 하더라도 그쪽을 좋게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더라도 해라 이 소립니다.

음성공양 올리는 뜻

문 저는 제주지원 심용회 이철규입니다. 저는 제주지원 거사회 합창단을 잠깐 소개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불교계에 최초로 거사회 합창단이 지난 1월 26일날 법행체를 중심으로 창단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날 제주문예회관에서 거행된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불교합창제에 보살합창단과 혼성으로 참가하여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법가를 배우고 음성공양을 하는 뜻은 어디 있으며 마음 기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듣고자 합니다.

기가 김으로 올라와서 그냥 불이 하늘에 두루 붙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넓히는 게 지혜를 넓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한다는 거. 또 모두 공심으로써 힘이 없이 사는 거. 이런 뜻이 바로 놓고 가는 겁니다. 힘이 없어야 하라. 내가 한단 말없이 내가 산단 말없이 내가 죽는 다 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놓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 허무한 생각도 좀 들고 무심한 생각도 들고 좀 고난이 심하면 살기 싫은 때도 있고, 그냥 조용한 데로 가서 좀 있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지죠. 뭐,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걸 응용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구선 딱 책정을 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화해됩니다. 화해하고 넘어지고 그대로 웃어지고 그대로 편안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선법가도 요만한 애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 다. 지금 살면서 애당기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가 된지 채 못되다가 병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이제 조금 알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많죠. 뭐, 그런데 각 지원을 가만히 보면요, 각 지원에 여러분이 공부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지원에서 지금 나오셨는데 그만큼 하고 가신다면 그 공부 잘하시는 겁니다.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이 지구라는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이거는 죄가 있어서 미생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처음부터 미생물로 나와서 성장을 해서 인간까지 와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됩니다. 도리를 모르니까, 업보가 있어서 고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죠. 인간이 불꽃 하나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얼마만큼 해서 인간이 됐느냐. 처음 즉 말하자면은 축성으로 부터 나왔느냐. 또 저런 나무들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물에서 나왔느냐. 흙에서 나왔느냐. 이 문제가 자기 살아가는 데로 용도대로 그거 주어지는 거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산 거에 대해서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못나게 나온 것도 내가 못나게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자기가 만들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이 모르시고 그냥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나오고 까지 동우리에 들어가면 까치로 나오고 그냥 이걸로 들어가면 이걸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사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진짜 사람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진짜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라고 다녀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해야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도리를 알아야만 우주 법계의 모든 그, 즉 말하자면 법방을

법칙 한마음선원 신도회